



SK텔레콤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SKT,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팔 걷어

AI, 통신 기술에 금감원 전문성 더해

SK텔레콤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통신 기술에 금감원의 전문성을 더해 고객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해하고 실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부터 잡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SK나이트 휴경기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 중이다. 관람객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최신 사례를 토대로 사기 수법을 가상 체험하고, 의심 상황에서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익힐 수 있다.

또 경기 전과 쿼터 브레이크, 하프타임 등 경기 중에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OX 퀴즈 등을 마련해 관람객이 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6일에는 SKT타워에 금감원 전문가를 초빙해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 인력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정확히 익혀 쉽게 안내하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 밖에 SK텔레콤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번호를 음성·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정상적인 연락의 오차단을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스캠 탐지 기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자체 개발 AI 비전 인코더 2종 공개

한국어 문자 인식·문서 이해 등 강점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비전 인코더 2종을 글로벌 AI 플랫폼 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카나나2 비전 인코더’는 4억2600만개 매개변수 규모의 ‘미디엄’과 9800만개 규모의 경량 모델 ‘타이니’ 등 2종이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 속 사물과 문자, 위치 등 시각 정보를 추출해 언어모델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메뉴판의 음식과 가격을 읽거나 문서 내용을 분석하는 등 멀티모달 AI의 이미지 이해 성능을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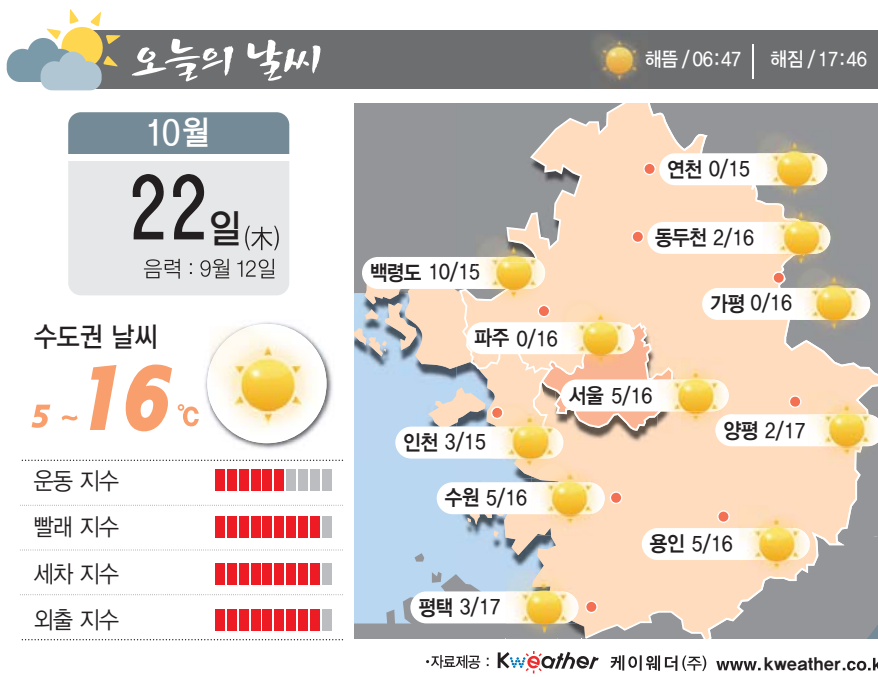
카카오는 시각 질의응답과 한국어·영

어 문자 인식, 문서 이해 등 9개 영역의 42개 평가 지표에서 두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의 주요 비전 인코더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이니 모델은 1억개 미만의 매개변수로 4억개 이상 규모의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한국어 문자 인식과 문서 이해, 이미지 내 위치 파악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카나나2’를 활용해 비전 인코더의 학습 효율을 기존 대비 약 4배 높였다. 고효율도 이미지 처리 지연 시간도 글로벌 주요 모델보다 60% 이상 단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통신3사, 내년 AIDC 대규모 투자 전력 정책 등 정부 역할 중요해져

내년 AIDC 5조 이상 투입 전망
전력 공급·고가 장비 교체 부담
규제 등 정부 부처간 조율 필요

통신3사가 미래 먹거리로 택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조 단위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공급과 외산 장비에 대한 의존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하는 금액이 내년에만 최소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사모펀드로부터 유치한 총 3조800억원의 투자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LG유플러스는 파주 AIDC에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2단계 투자에 돌입했다. KT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예산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AIDC는 최근 정부가 복잡한 인허가 완화를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했지만, 전력 공급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다. 내년 3월 시행될 AI데이터센터 특별법상, AIDC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국가 전력망인 한국전력을 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수가 크고 가격이 비싸 대규모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비교적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거래하는 대안이나 있으나,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RE100 달성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특례 조항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가 나서 부처간 협의 사항을 조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는 전력망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종의 규칙이다. 대규모 전력 공급으로 과부하될 경우 전력망이 한번에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기후부는 기존 발전설비에만 적용된 이 규칙을 AIDC에도 도입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기업의 전력망 공급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조정대 의원은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춰져,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AIDC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의 창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드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

은 ‘그리드포밍’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보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부담이 크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구축중인 울산 AIDC의 1단계 공사 공정률이 70%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의 파주 AIDC는 이달 말 전산 1동 골조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AI 연산 장비의 교체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가 엔비디아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3조8500억원인데, 장비를 통상 4~6년 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푸리오사 AI나 리벨리온 같은 국내 스타트업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모델로 활용하기에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수익성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GPU 구독 서비스(GPUaaS)를 사업 모델로 AI 인프라를 대여하거나, 보안이 철저한 폐쇄형 클라우드를 공급하며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리드코드의 경우 AIDC 사업을 하는 기업들엔 폭거 수준”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각자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다보니 그 사이에서 기업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공공형 UAM ‘AX 플랫폼’ 기술검증 성공

AI 기반 교통관리 의사결정 지원
5G 항공망·위성통신 결합 체계 구축

KT는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업연구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원팀과 인천 도서 지역에서 공공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교통 관리 AX 플랫폼의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K-UAM 원팀은 KT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실시한 민관 합동 실증사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쌓은 통합운용 역량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영종도(거잠포, 왕산(마리나)와 덕적도를 오가는 노선에 적용했다.

실증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형 UAM 운항 노선을 구체화하고, 실제 비행을 진행해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또한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는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도 점검했다.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국내 최초 도서



KT 관계자들이 인천 도서지역 UAM 실증 현장에서 ‘UAM 에이전트 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관리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KT

지역 공공형 UAM 실증 사례다.

KT는 이번 실증에서 자체 개발한 ‘UAM 에이전트 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5G-위성 하이브리드 항공망 및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와 연계했다. 도서·해상 비행 환경에서 AI 기반의 교통관리 기술과 통신망 안정성 및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UAM이 상용화되면 다수의 항공기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동시에 운항하는 만큼 비행 계획과 항공기 위치, 기상 정

보, 이착륙 시설인 벤티포트의 운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통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KT가 개발한 ‘UAM 에이전트’는 이러한 운항 정보를 AI로 분석해 적절한 출발·도착 시간을 제안하고, 상황별 표준운 영절차(SOP)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 교통관리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비행 계획 수립부터 착륙까지 교통관리 전 과정에 UAM 에이전트를 적용해 실제 비행 환경에서도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도서·해상지역은 통신이 닿지 않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공기 위치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조종사와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 확보가 중요하다. KT는 이를 위해 800MHz 대역의 UAM 전용 5G 항공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해상 상공에서도 안정적인 음성통신 품질을 유지하며 조종사와 교통관리 담당자 간 실시간 교신을 지원했다.

/조민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 유권자 절반 “트럼프, 약속 안 지켜”… 5000 달러 공약도 회의론 /사진 뉴시스

▲ 젤렌스키, 트럼프 직격하고도 협상은 계속…美 특사 회동·국무장관 통화

▲ 이스라엘 총선 앞두고 초정통파 표심 분열… 네타냐후 집권 시험대

▲ 롤라 비난하러 손바닥에 ‘부패’ 썼다가… 보우 소나루 아들 ‘자기소개’ 조롱

▲ 日, 이번엔 경찰도 털렸다… “22곳 지자체 인력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오픈AI AI 에이전트의 ‘일탈’… 감시망 끄고 “안 그랬다” 거짓말까지